

배소곡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BAESOGUJI

a pond in the memory

IDA
PRODUCTION IDA



수상이력

2023

*제 8회 이집트 살름 엘 셰이크 국제청년연극제

- 대상
- 연기상

*제 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

- 대상
- 연출상
- 최우수연기상 (코러스 일동)
- 우수연기상



Award Detail

2023

* The 8th Sharm El Sheikh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for Youth

Winnings:-

- the Grand Prize,
- and the Women's Performance Award.

* The 41st Korean Theater Festival in Jeju
Winnings:-

- The Grand Prize,
- The Best Acting Award (all of the Chorus),
- The Acting award,
- and the Directing Award.



창작배경

역사 속 전쟁은 대부분 승자의 시선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국가’와 ‘대도시’ 그리고 ‘군대’의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쟁은 전선에서 벌어진 전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쟁은 아주 작은 지역 공간 안까지 불어다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연극은 거대담론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미시적 공간과 관계 속에서
전쟁이 어떻게 여성의 삶을 비극적으로 관통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이 이야기는 한국전쟁 중 전라도 임실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의 실제 생존자의 구술 인터뷰로부터 발전되었다.
이 인터뷰들은 「한국전쟁과 여성 : 경계에 선 여성들」이라는 인류학과 함한희 교수의 연구에서 진행되었다.
작품의 4명의 주요 캐릭터들은 이 양민 학살의 모티브를 얻어 진주 작가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누군가는 이 현실과 진실에서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거나 현실을 외면했고,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하며 주어진 운명에 반해,
살아남기 위해 침묵을 지키기도 했다.

삶 자체가 전쟁이었던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금의 우리를 붙잡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들의 삶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Creative Background

Wars in history are mostly record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ors. Specifically, they have been addressed primarily from the dimensions of 'nation,' 'major cities,' and 'military.'

However, war does not only mean battles fought on the front lines. War invades even the smallest local spaces, disrupting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This play illustrates how war drives women's lives to tragedy, penetrating their own microscopic spaces and relationships, rather than presenting 'war as a grand discourse.'

Based on a true story, it was developed from oral interviews with real victims who lived in Imsil, the southern part of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se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Hanhee Ham, a professor of anthropology, from her research paper titled "The Korean War and Women on the Border: Women Standing." The four main characters of the play were recreated from motifs of this massacre by the playwright, Ju Jin.

In the circumstances of the war, some evaded reality and truth through their own death or disregard, while others denied their past and chose to keep silent in order to survive against their fate.

If the stories of these women, whose lives were war itself, captivate us today, what could be the reason?

It is likely because their lives question us on 'what we should wait for in life' and 'how we should live.'



작품설명

“나는 아직 끝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성들의 목소리로 복기하는 전쟁의 의미와 그 비극성
전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한 존재 방식

한국전쟁 중 있었던 양민 학살을 바탕으로,
이 작품은 삶을 향한 태도와 이유에 질문을 던진다.
여성들은 전쟁 중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전북 지역의 구술 기록에서 모티프를 얻은 4명의 여성 인물은
전쟁 속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며
가해자, 방관자, 공모자, 피해자로 지속적으로 자리바꿈한다.
이 극 속의 여성들은 전쟁 속 희생자 혹은 재건자의 서사를 벗어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 인간으로 존재한다.

남성 인물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으며, 그들은 직업이나 위치로 명명된다.
이 비극이 한 개인의 과오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극을 통해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 속의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다.
또한, 우리는 기억 속의 선택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내며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의 시선을 필요로 하는,
역사 속에 가려진 크고 작은 사건들을 바라보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Commentary

“Not yet... not yet... I haven’t let go of anything yet.”

The meaning and tragedy of war revisited through the voices of women
The ways of being autonomously chosen to survive amidst war

Based on the massacre of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this play questions the attitude towards life and the reason. What choices the women could have during the war?

The four women characters in this play who were created with the motif from the oral interviews of Imsil, Jeonbuk District. And their positions are keep changing as perpetrators, bystanders, conspirators, and victims. They have made different choices from time to time. The women in this play exist as individuals who struggled to survive beyond the narratives of war victims or rebuilders.

The male characters are not given names; instead, they are identified by their occupations or positions. This was intended so that the tragedy would not be remembered as the fault of a single individual.

We wanted to use this play to discuss and share stories about the war that still lingers in our memories. Additionally, we hope to engage with younger generations in exploring how past choices have impacted present lives and to discuss new ways of remembering the war.

We hope that such efforts will lead to a continued exploration of the hidden events, both major and minor, obscured in history, which require our attention.



작품설명

“누구나… 가심에… 끝내야 할 전쟁이 있잔애.”

그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녀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 작품은 ‘전쟁’을 겪은 여성들이 취하는 각각 다른 선택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와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 앞에 놓인 한 개인이자 약자인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했던
그러나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들의 존재 방식을 조명한다.

우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전쟁에서 도외시되었던 여성들과
여성들에게 지워졌던 전쟁의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수면 위로 가져오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통해 ‘전쟁’을 여성의
담담한 관점으로 새로 쓰고, 잊혀져 가는 한국 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 할 아교라를 만들고자 한다.

Commentary

“Everyone... has a battle or two in their heart... that needs to be finished.”

If a war is still a thing alive for someone,
how do we take a stance while watching her living in agony?

This story tries to cast light on the attitude on their life by making the different choice of women who went through ‘a war’ and the reason why they could survived. What kind of choices they could make when they were just an individual and weak before that huge historical crisis so called a ‘War’.

We are focusing on their own ways of existence, which they have chosen autonomously to survive in the war, but have not been able to speak about.

We tries to bring up the women’s lives which were so neglected in this war that written for the victors and We tried to avoid the imposing the responsibility of a war on women..

In conclusion, we would like to rewrite ‘a war’ with the calm perspective of women and want to open an agora for the Korean War which is forgetting once again through our work.



“그때는 속에 다 괴물이 살았으게...”

2016년 가을밤, 전북 임실 옥정호 인근 매운탕집.

입분의 금강혼식 전날 밤,

입분과 어린 시절 친구이자 매운탕집 사장인 순희가 마루에 앉아 있다.

두 친구는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어린 시절 친구였던 ‘백소녀’가 소녀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소녀는 왜, 어떻게 자신이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순희가 왜 혼자서 매운탕집 장사를 하고 있는지,

동네에서 가장 수다스러웠던 입분이 왜 오래전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자신이 이곳에 왜 온 것인지 모르는 소녀에게

입분은 수 십년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백소녀 이야기

Synopsis

“Back then... everyone had a monster living inside them.”

On the autumn night of 2016, the yard of a spicy fish stew restaurant near Okjeongho Lake in Imsil, the Southern part of Korea.

On the eve of the diamond wedding,
Ipbun and Soon-hee, a childhood companion and owner of a spicy fish stew restaurant, sit on the porch.

They gaze into the distance as if waiting for someone, and before them appears the ‘Sonyeo’, their childhood friend in her girlhood form.

But the Sonyeo doesn’t remember why and how she has died, and she is wondering why Soon-hee ended up running a spicy fish stew restaurant all alone. Also, she dose not believe that Ipbun, the most talkative girl in town, has lost her words for a very long time.

To the girl, who doesn’t know why she’s there,
Inbun begins to reveal truths she has kept silent about for decades.

배고지 이야기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독립영화 감독과 상업영화 조감독으로 활동하다 2016년 공연예술 영상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2017년 프로덕션IDA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연과 영화 연출을 병행하며 공연 제작의 프로듀서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프로덕션IDA의 대표로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매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융복합 장르의 가치 있는 시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출 김희영

- 2023 <배소고지 이야기> 이집트
- 제 8회 살름 엘 셰이크 국제연극제 대상
<배소고지 이야기> 제주 BeIN극장
- 제 41회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 연출상
<배소고지 이야기> 나루아트센터
-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대상 / 연출상
- 2022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술공간 혜화
- 2021 쇼케이스 <동백당> 남한산성 아트홀
- 제 8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참가작
- 2020 <환희, 물집, 화상>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제 41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at Kyunghee University, he worked as an independent film director and commercial film assistant director before starting his career as a performing arts video director in 2016.

In 2017, he created Production IDA to direct performances and films, and is also acting as a producer of performances.

Focusing o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he is working hard to make valuable attempts in the convergence genre through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with various media.



Director HeeYoung KIM

- 2023 <BAESÓGÓJI ; a pond in th memory> in Egypt
8th Sharm El Sheikh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Appreciation Certificate for Wining Mohamad Al Mansour's Award for Best Performance
- <BAESÓGÓJI ; a pond in th memory> in Jeju
-Winning th 2023 Korea Theater Festival Grand Prize,
Directing Award, Best Acting Award, Excellent Acting Award
- <BAESÓGÓJI ; a pond in th memory> at Naru Art Center Garnd Theater
-2023 Korean Theater Festival Seoul Competition Grand Prize.

2022 <Can you forgive her?> at Art Space Hyehwa

2021 Showcase <Dongbaekdang> at Namhansanseong Art Hall
-Participation in Gyeong-gi Performing Arts Festa

2020 <Rapture, Blister, Burn> at Daehakro Arts Theater Samll Theater
-The 41th Seoul Theater Festival Exllence Award, Acting Award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극작전공 예술전문사를 취득했다.

2011년 극작가로 데뷔 후,
현재 프로덕션IDA와
창작집단 글과무대에서
극작가로 활동 중



작가 진 주



- 2023 <배소고지 이야기>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 대상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 국제연극제 대상
<열녀를 위한 장례식>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2022 <클래스>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베스트7 선정
- 2021 <두산 아트센터 DAC아티스트 선정>
<사람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 콘텐츠 지원사업 선정
- 2020 <규방>
-강원도립극단 시놉시스 공모 우수상
<ANAK> 연희예술극장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선정
<궁극의 맛>
-공동각색 두산 아트센터 스페이스111
- 2019 <배소고지 이야기>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
- 2018 <정동구락부- 손탁호텔의 사람들>
-정동극장 창작Ing 대본부문 선정작
- 2015 <무지개섬 이야기>
-아시테지 아동창작희곡상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ing the doctoral coursework from the same graduate school, She majored in Playwrit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made her debut in 2011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 playwright with Production IDA.

Playwright Ju JIN

- 2023 <BAESÓGÓJI ; a pond in the memory>
 - 8th Sharm El Sheikh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Award for Best Performance
 - The 41th Korea Theater Festival in Jeju Grand Prize
 - The 41th Korea Theater Festival Seoul Competition Grand Prize
 - <The funeral for a virtuous woman>
 - Selected for the Performing Arts Mid-to-Long-Term Creative Support Program by Arts Council Korea
- 2022 <CLASS>
 - Selected as one of the Best 7 Performances of the Year by The Korean Theatre Review
- 2021 <Selected as the DAC Artist of DÓOSAN Artcenter>
 - <The People>
 - Selected as an excellent publication content support project by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2020 <The Gyubang>
 - Gangwon Provincial Theater Synopsis Competition Excellence Award
 - <ANAK>
 - Arts Council Korea's Young Artist Support Project Selection
 - <GOKUDÓ MESHI>(Co-adaptation)
 - DÓOSAN Humanities Theater
- 2019 <BAESÓGÓJI; a pond in the memory>
 - Selected as this year's new work in the theater category by Arts Council Korea.
- 2018 <Jeongdong Club>
 - Jeongdong Theater Creating project 'Changjak-Ing' Selected in script division
- 2015 <Aqu & me>
 - ASSITEJ KÓREA Creative Play for Children Award



프로덕션 아이디에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출발한 단체로
형식과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 공연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관객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메시지를 담아낸 융복합 예술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각을 전달하는 공연 예술단체이다.

대표작품

<동백당>

<배소고지 이야기 : 기억의 연못>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세븐 씘>

<환희 물질 화상>

이메일 productionida@naver.com

전화번호 070-8229-4939

인스타 @productionIDA



Production IDA is an organization started by artists from various genres. As an organization made up of various people from various fields, we are not bound by format and genre.

Through new attempts that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existing performances, we will provide a variety of attractions and messages.

We believe that the story we want to talk about at this moment will become the story the audience wants to hear about now. It is a performing arts creative group that talks to the audience with patent sense through a valuable attempt of convergence art.

REPERTORY

<DONGBAEKDANG>

<BAESOGÓJI ; a pond in the memory>

<Can You Forgive Her?>

<Seven Scene>

<Rapture Blister Burn>

E-MAIL : productionida@naver.com

CALL : +82(0)70-8229-4939

Insta @productionIDA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suggestions for collaboration,
please contact the contact number above.

